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대동강 유람

이새롬(한국학중앙연구원)

1. 들어가며

한강과 압록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대동강은 인력이나 물자를 이동시키는 교통의 요지였다. 게다가 대동강은 '대동강에서의 뱃놀이 모습[車門泛舟]'과 '이른 봄 마탄(馬灘)에서 눈 섞인 물이 소용돌이치는 모습[馬灘春漲]'이라 하며 평양 8경으로 손꼽힐 정도였기에 이곳을 유람한 문인들이 많았으며, 그 풍경을 예찬하는 시도 많이 남아 있다.

대동강은 고려시대부터 연회가 이뤄지는 주요 장소 중에 하나였다. 평양 감사 부임을 축하하는 연회를 비롯하여 소소한 모임들이 열렸고, 사신들도 한 번씩 대동강 일대를 유람하였다. 대동강 주변의 연광정(練光亭), 부벽루(浮碧樓)도 유람 장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강에 배를 띄워 강 한복판에서도 연회를 도안한 유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배 위에서 유람하며 연회를 여는 것은 조선시대 문인들의 주유(舟遊) 방식 중 하나로 유람 분위기가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대동강 유람시도 다른 유람시(遊覽詩)와 비슷하게 뛰어난 풍경을 자랑하거나 주유(舟遊)의 흥취를 시로 남기기도 하였다. 나아가 중국을 오가는 통로였기에 양국 사신들 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도 많다.

이렇게 다양한 작품이 남아 있지만 연구사에서 아직까지 대동강 유람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관서지방 유람시를 고찰한 연구에서 한두 편 소개된 것이 전부이다. 현재로서는 대동강 유람시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그 특징을 확인할 만한 연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강 유람시를 소개하면서 선상(船上)에서 열린 연회에 참여한 이들 간의 정서적 교류와 중국 사신들과의 문화적 교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동강 유람시의 전형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대동강 유람과 유람시 창작 전통

대동강이 흐르고 있는 평양은 한때 고구려의 수도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서경(西京)이었

기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해 대동강은 고적(古跡) 명승지(名勝地)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대동강에 잘 알려진 유적지로는 동명왕이 기린마(麒麟馬)를 타고 올라갔다는 조천석(朝天石)과 기린굴(麒麟窟)이 있어 오래 전부터 많은 문인들이 답사를 했다. 또한 주변 풍광도 무척 아름다워 관서 지방을 유람하는 문인이라면 누구나 대동강에 와 주유(舟遊)를 즐기곤 하였다. 특히 대동강 인근의 누정들은 고려시대부터 문인들이 자주 시회(詩會)를 벌이며 작품을 남긴 곳이라 후대 문인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

대동강 상류(上流)에는 을밀대(乙密臺)와 사허정(四虛亭)이 있으며, 그 아래로는 영명사(永明寺)가 있다. 영명사 앞 대동강 절벽 위에는 부벽루로 이어지며, 물길을 따라 돌아 장경문(長慶門) 옛터를 지나면 연광정이 나온다. 대동강 유람은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거나 물길을 따라 내려오며 곳곳에 있는 명승지를 멀리서 관람하는 주유(舟遊)와 대동강 일대의 주변 명승지를 하나하나 둘러 대동강을 조망하는 경우로 나뉜다.

조선 후기 문인인 서영보(徐榮輔)가 대동강을 유람하며 쓴 시 <패강(溟江)에서 안사(按使) 박장과 함께 배를 타고 백은탄(白銀灘)을 거슬러 올라가 부벽루 위에서 술을 조금 마신 뒤 달빛 속에 배를 돌려 대동문에서 내렸는데, 안사(按使)가 선창하기에 차운하였다 [溟江, 與按使朴丈同舟, 泝白銀灘, 登浮碧樓小酌, 乘月回舟下大同門, 按使先唱, 次韻.]>을 통해 백은탄- 부벽루- 대동문으로 이어지는 유람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가볍게 여울 오르려 피리 불고 배 띄우니	笙簫泛舸泝灘輕
높이 솟은 부벽루 날 갠 저녁에 기대었네	浮碧樓高倚晚晴
고삐 잡자 맑은 바람이 무더위 몰아내고	攬轡清風排暑氣
다른 자리 얼굴 펴고 고향 얘기 정답게 하네	開顏他席話鄉情
붉은 정자 굽이굽이 물가에 가까워지고	紅亭曲曲臨脩渚
화극(畫戟)은 느릿느릿 성 중간을 지나가네	畫戟遲遲度半城
밝은 달 긴 숲서 배돌리니 좋아서	明月長林迴棹好
거울 같은 고른 물결 뱃노래하며 노젓는다네	舷歌擊汰鏡光平 ¹

시에서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길을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였다. 물

¹ 서영보, 『竹石館遺集』(한국문집총간본). 번역은 고전종합DB를 참조 후 수정하였다.

결을 거슬러 올라 부벽루를 멀리서 바라보고 대동문까지 내려오는 여정을 한 수 안에 담아내었다. 배 안에서 관찰한 풍경은 무척 한가롭고 청량하다. 여름에도 배 위에 부는 바람 때문에 더위를 잘 느끼지 못할 정도라 하며 시원한 강 풍경을 묘사하였다. 대동강의 특정 지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굽이굽이[曲曲]', '느릿느릿[遲遲]', '지나가네[度]', '노젓는다네[擊汰]', '배돌리니[廻棹]'와 같은 동적인 느낌을 주는 시어들을 활용하였다. 배의 움직임을 따라 정자와 물가, 성 등을 순차적으로 묘사하여 대동강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대동강 유람시 창작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고려 예종이 대동강에서 성연(盛宴)을 베풀면서 여러 신하들과 많은 시를 지었으며 김황원, 정지상, 김부식 등의 시인이 대동강을 소재로 시를 남겼다. 조선시대에도 대동강을 찾는 문인들이 많았으며, 앞서 언급한 고려 시대 문인들이 남긴 시에 영향을 받아 시를 차운하였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많이 차운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정지상의 <송인(送人)>이 손꼽을 수 있다. 정지상의 시를 차운한 작품으로는, 서거정의 <평양(平壤) 대동강(大同江)의 누선(樓船) 위에서 정지상(鄭知常)의 운(韻)에 차운하다>와 한장석의 <정지상의 두 절구에 차운하다[次鄭知常二絕句]> 등이 있다.

이 밖에 명(明) 사신(使臣)들과 조선 원접사(遠接使)가 대동강을 유람하며 수창한 작품들도 있다. 대동강의 뛰어난 경치와 곳곳에 자리 잡은 유적지, 풍부한 물산은 명나라 사신들이 유람을 하며 조선의 문화를 익히기에 적합하였다. 도성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압록강을 건너기 전 대동강에서 유람을 하고 명의 사신들과 조선 원접사들이 수창하였는데, 이는 『황화집(皇華集)』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화집』은 명의 사신이 처음으로 조선에 왔던 세종(世宗) 말년부터 인조(仁祖) 때에 이르기까지 24차례에 걸쳐 조선과 명의 양측 사신이 서로 창수한 시를 모아서 편집한 책이다. 세종 대 문인인 정인지부터 인조 대 문인인 신계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인들이 시를 남겼다. 그 중 서거정, 이행, 신광한, 정사룡, 유근 등은 이때 쓴 시들을 별도로 엮어 개인의 문집 속에 실었다. 또한 이수광은 홍주목사(洪州牧使)로 있을 때,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자 제술관으로 도성으로 가게 되자 『황화집』에서 황홍헌(黃洪憲)과 왕경민(王敬民), 주지번(朱之蕃)과 양유년(梁有年)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짓고 별도로 편집하였다.

이 외에도 대동강 유람은 여러 문인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람시도 연구시의 형태로 시를 짓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허성의 <패강에서 달 아래 배를 띄우며 연구시를 짓다[溟江泛月聯句]>와 조태역의 <패강의 배 안에서 서백(西伯)과 함께 연구시를 짓다[溟江舟中與西伯聯句]>가 있다.

성대하게 이뤄지는 주유(舟遊)는 대동강 유람을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많은 문인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뱃놀이라는 화려한 놀이가 전제되는 유람은 문인들에게 자신의 풍류를 꾸밈없이 표출하게 만들었고, 유람에 참여한 이들과 시를 수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주유(舟遊)로 즐기는 대동강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평양은 본래부터 풍류의 공간으로 유명하였다. 배를 띄운 채 지인과 기생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즐기는 것은 당시에 성행하던 흔한 선상(船上) 유람 방식이지만 평양의 풍류적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성대하게 이뤄졌다. 주유(舟遊)하며 문인들은 서로 시를 주고받았고, 유람하며 느끼는 흥취를 표출하고 공감하였다.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함이나 탈속적 정취가 두드러지는 다른 유람시에 비해서 뱃놀이의 '놀이' 자체가 중심이 되어 연회의 화려함이나 즐거움, 이에 대한 자부가 부각되는 점이 특징이다.

택당 이식은 1626년 대동강 일대인 연광정, 부벽루 등을 유람하며 시를 남겼다. 그 중 대동강에서 주유를 즐기며 남긴 시 <대동강(大同江) 남쪽 물에 배를 띄우고 차운하여 입으로 읊다>에서는 '당시 주연을 여는 것을 조심하고 잇던 탓에 배에 술만 가지고 유람하였는데 대동강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였다.'라 하며 주유의 모습이나 시를 쓰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대동강 유람이 주연을 중심으로 무척 화려하게 진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가는 줄 빗겨 꿰는 곳 버들 그림자 지나가고	輕纜斜穿柳影過
강 물결 중간쯤에 거꾸로 꽂힌 붉은 정자	紅亭倒插半江波
사죽 악기 없던 산음 모임 아쉽지 않은 건	山陰莫恨無絲竹
모래섬 여기저기서 뱃노래 들려서라네	處處芳洲欸乃歌 ²

이 시의 도입부는 길게 늘어진 버들 사이를 배를 타고 지나가며 한가로운 흥취를 보여준다. 버들 그림자가 비춰지는 푸른 강물과 붉은 정자가 대조되는 묘사는 대동강의 풍광을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시인은 이미 대동강의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화려한

² 이식, 『澤堂集』권3 (한국문집총간본). 번역은 고전종합DB를 참조 후 수정하였다.

연회는 부럽지 않다고 자부하였다. 비록 배 안에서 즐길 만한 것은 술뿐이라 그 외에는 달리 흥을 돋울 만한 도구가 없지만 애써 다른 풍류를 찾을 것 없이 대동강 풍경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또한 왕희지(王羲之)의 산음(山陰) 모임에 비견하며 자신의 유람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산음(山陰) 모임은 왕희지가 어느 날 눈 내린 밤에 달 아래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불현듯 섬계(剡溪)에 있는 친구 대규(戴逵)가 보고 싶어지자, 밤새도록 배를 몰고 찾아갔다는 고사가 있다. 이식이 산음의 모임이 부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유람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었기에 멀리 떨어진 벗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유에 대한 자족감은 곳곳에서 들리는 노랫소리를 통해 더욱 높아진다. 이식이 타고 있는 배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배 위에 오른 이들이 많음을 마지막 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주변 배는 한적한 이식의 배와는 달리 노랫소리로 떠들썩하다. 이 때문에 이식의 배까지 그 풍류가 전해져 마치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식의 주유는 이전과는 달리 소박하지만 대동강의 풍광과 주변의 배에서 전해지는 풍류가 어우러져 그 나름의 흥취를 내고 있다.

술만 배에 실어 연회를 열지 않은 이식의 선상 유람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언급하다 시피, 대동강에서 이루어진 유람은 굉장히 화려한 편이다. 당대 문인들은 주유(舟遊)를 할 때, 술과 안주, 음악과 이를 연주할 악공이나 기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대동강 유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대동강 유람시에는 함께 주유를 즐기고 있는 기녀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때도 있다.

유몽인은 함께 주유를 즐긴 기녀에게 시를 써 주기도 하며 호방한 풍류를 선보였다. 시 <대동강의 배에서 노래하는 기녀 향란에게 주다[大同江舟中贈歌妓香蘭]>가 대표적인 예이다.

서경의 제일 미인 무척 감사하니	多謝西京第一娥
누선을 전송하며 능라도에 이르렀네	樓船相送到綾羅
푸른 풀 희미하게 안개가 성첩 단장하고	依微嫩綠粧煙堞
붉은 꽃은 어지러이 바위 틈을 수놓았네	歷亂殘紅繡石窠
변변찮은 술이라고 어찌 웃음 아낄까나	薄酒何慳粲一笑
높은 구름이 푸른 물결에 닿을 듯한데	高雲欲逗碧千波
술 백 병쯤 배에 싣는 것 훗날의 일이니	百壺蕩槳他年事

시의 수신자인 향란에게 서경 제일의 미녀라고 칭찬하며, 동시에 능라도(綾羅島)에 도착하여 승경지를 함께 하게 된 즐거움을 전하였다. 능라도는 대동강에 있는 섬으로 경치가 빼어나 기성팔경(箕城八景)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푸른 물과 물가의 안개를 두르고 있는 성첩과 바위 위로 떨어진 열마 안 남은 꽃잎을 묘사하며 붉고 푸른 색이 선명한 대동강가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대동강의 수려한 풍경이 있기 때문에 배에 실은 술이 보잘것없는 박주(薄酒)라도 유몽인은 만족스러워 한다. 7 번째 구(句)는 두보의 <성서피범주(城西陂泛舟)>에 나오는 “작은 배를 저어가지 않는다면 샘 같은 백 병 술을 어찌 보낼 수 있으랴.[不有小舟能蕩槳 百壺那送酒如泉.]”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유람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술 대신 시를 통해 자신의 풍류를 표출하는 모습은 유람에 대한 자족감과 자신의 시재(詩才)에 대한 자신감이 전제된 행동이다. 나아가 함께 유람을 즐긴 이에게 시를 매개로 자신의 흥취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대동강의 주유는 당시 평양에 재직한 관리들이 한 번쯤 즐겼던 놀이문화였다. 관직자가 함께하는 경우에 주유는 더욱더 풍요로워진다. 이는 성현의 시 <대동강에 이르자 감사 현덕장이 와서 배 안으로 맞이하다[到大同江監司玄德璋來迓舟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른 강에 그림 같은 배 띄워 북 등등 울리고	畫船槌鼓碧江濱
객과 손님 서로 권하며 진미 실컷 먹네	主勸賓酬飫八珍
그릇 속에 삶은 적순 향기롭고	盤裏軟香烹荻筍
쟁반 속에 자른 생선회 가는 길 같다네	盤心細縷割鮮鱗
풍악 연주하는 미인들은 모두 처음 보지만	紅粧執樂皆新面
술잔 넘기는 푸른 도포는 옛 친구구나	靑袖傳觴有舊人
술 취하니 둘 다 귀밑 희어진 걸 알지 못하고	醉裏不知雙鬢白
다시 젊은 기녀 끌어다 은밀히 서로 친하네	更携稚髻暗相親 ⁴

³ 유몽인, 『於于集』권1 (한국문집총간본). 번역은 고전종합DB를 참조 후 수정하였다.

⁴ 성현, 『虛白堂集』권7 (한국문집총간본). 번역은 고전종합DB를 참조 후 수정하였다

대동강 유람을 함께 한 '덕장(德璋)'의 이름은 현석규(玄碩圭)로, 평양 감사를 역임한 문인이다. 평양 감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성현의 대동강 유람은 성대하게 열릴 수밖에 없다. 북을 울리며 음악으로 연회의 시작을 알리고, 술과 산해진미를 가득 늘어 놓고 노는 모습을 시의 전반부에 배치하여 주유(舟遊)의 흥겨움을 전달하였다. 음악과 술과 맛있는 음식으로도 충분하지만 기녀의 풍악소리로 유람의 흥을 더욱 깊어진다. 동시에 오랜만에 만나게 된 벗에 대한 반가움도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 구에서는 벗과 자신이 나이가 들었지만 연로함 마저 잊고 유람을 즐기는 모습을 그려내 호방한 풍모를 드러내었다.

성현의 또 다른 대동강 유람시 <절도사 김백겸과 함께 대동강에 배를 띄우고 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려 하다가, 저녁 무렵 바람이 어지럽게 부는 바람에 도로 성 머리에 정박하고는 거나하게 취해서 밤늦게 돌아왔다. 이때 종사관 윤희점이 수행하였다.[與節度使金伯謙泛舟大同江將順流而下因日暮風亂還泊城頭半醉乘昏而還時從事官尹希點隨行]>⁵에서도 대동강 주유의 화려함이 잘 묘사되었다. '배 안 가득 풍악 소리 하늘에 뒤끓고, 요리사는 회를 떠서 술상을 차려 오네. 어울려서 술마시며 취하기를 사양 않고, 온 자리서 환호하며 허물없이 노니다네[滿船歌吹聲沸天, 膳夫割鮮進芳醕 相從痛飲不辭醉, 滿席歡呼相爾汝.]'라 하였는데, 두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유람의 모습은 무척 비슷하다.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연회답게 회로 안주를 삼아 술상을 풍성하게 하며, 술에 취해 나이와 신분을 잊고 모두 어울려서 노는 모습이다. 다만 배에 함께 태운 요리사의 존재나 나이를 잊고 너나할 것 없이 즐기는 태도는 앞 시보다 유람의 규모가 더 커 보인다. 이 시를 쓴 당시 성현은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했는데, 관찰사로서 여러 관인들과 함께 하였기에 유람은 과시하듯 화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609년에 명나라 사신이 도착하자 제술관으로 부임하게 된 이수광은 『황하집』에 수록된 황홍헌(黃洪憲)의 시 <대동강에 배를 띄우고 왕급간의 시에 화운하다[泛大同江和王給諫韻]>의 두 수를 차운하여 <'대동강에 배를 띄우다'에 차운하다.[次泛大同江]> 6수를 지었다. 그 중 2번째 수는 대동강을 유람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비항 말을 세우고 강어귀에 배를 띄웠으니	橫舟江口駐飛黃
화려한 연회서 함께 취해 덕으로 이어지네	共醉華筵見德將
적벽 아래 빼어난 노닐 오랜 일이니	赤壁勝遊千古事

⁵ 성현, 『虛白堂集』권13 (한국문집총간본). 번역은 고전종합DB를 참조 후 수정하였다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동강의 주유(舟遊)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이다. 1번째 구(句)의 비황(飛黃)은 전설 속 신마(神馬)의 이름인데, 관직의 이동이 빠른 것을 비유할 때 쓰인다. 여기서는 갑작스럽게 제술사로 부임하게 된 이수광 자신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이수광이 대동강에 도착해 유람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여 주유 모습을 그려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번째 구(句)에서는 선상의 연회 속에서도 덕을 잃지 않고 고상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서경』의 <주고(酒誥)>에서 “술을 항상 마시지 말라. 여러 나라가 술을 마셔도 오직 제사 때에만 할 것이니, 덕으로 이어가 취하지 말지어다.[無彝酒. 越庶國, 飲惟祀, 德將無醉.]”라고 한 것을 인용한 구절이다. 시의 후반부에는 소식의 <전적벽부(前赤壁賦)>의 구절을 인용하며 대동강 유람을 적벽의 뱃놀이로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에서 유람을 즐기고 있는 이는 시의 작자인 이수광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신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사신들이 대동강에 도착한다면 이러한 유람을 즐길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도 보인다. 대동강에 배를 띄워 고상한 풍류를 즐기는 것이 당시 유람의 방식 중 하나였고, 이를 타국(他國)의 사신과 함께 하며 대동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므로 대동강 유람을 적벽의 뱃놀이에 비견하는 모습은 대동강 유람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주유(舟遊)의 문화에 대한 소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문인들은 함께 평양 일대를 유람하기로 약속을 하거나 평양으로 관직을 옮겨 온 벼들을 만나며 함께 유람을 즐기기도 하였다. 선상에서 벌어지는 연회의 화려한 모습이나 시를 통해 흥을 표출하는 것은 조선시대 문인들의 유람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동강 유람은 풍요롭고 풍류가 있는 도시라는 평양의 도시적 이미지와 맞물려 유람이 보다 화려하고 성대한 모습을 보인다. 주유로 일어난 흥을 시로 표출하고 주고받으면서 정서적 교감을 이뤘다.

게다가 명의 사신들을 대접하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교류의 의미가 보다 부각된다. 대동강에서 유람하면서 조선의 놀이 문화를 소개하고 조선의 자연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

⁶ 이수광, 『芝峯集』 권4 (한국문집총간본). 번역은 고전종합DB를 참조 후 수정하였다. 원운 <泛大同江和王給諫韻>의 첫번째 수는 ‘楓落江寒橘袖黃, 畫船簫鼓晚相將. 嚙杯共醉藤蘿月, 火樹連城徹夜光.’이다.

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차운시를 통한 정서적·문화적 교류

명나라 사신들은 대동강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물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며 조선의 문화에 대해 감탄하거나 인식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원접사들과 시로 수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양국 사신들은 정서적·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조선 원접사가 명나라 사신의 시를 수창한 경우, 공통적으로 반가움이나 이별로 인한 아쉬움을 발견할 수 있다. 명에서 조선으로 올 때, 대동강은 만남의 장소가 되지만 사신들이 명으로 되돌아갈 경우, 대동강은 이별의 장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강에서 조선 원접사가 수창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만남과 이별의 정서 중 하나는 발견할 수 있다.

서거정의 시 <‘패강(溟江)에서 생양관(生陽館)에 이르러 짓게 되다[自溟江至生陽館有作]’에 차운하다>에서는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대동강을 인식하였다.

오래된 역엔 숲 길게 뻗고 나무 높으며	古驛長林喬木
봄 들녘엔 따뜻한 햇살에 어여쁜 구름있네	春郊暖日嬌雲
나그네 가는 길에 장정(長亭)과 단정(短亭)이 있어	客路長亭短亭
이때에 그대를 만나기도 보내기도 하네	此時逢君送君 ⁷

이 시는 기순의 시를 차운한 것으로 대동강에서 여러 차례 유람을 마친 뒤 생양관(生陽館)으로 이동하며 쓴 시이다. 생양관(生陽館)은 평안도에 있던 역참의 이름으로 생양관(生陽館)에서부터 의주(義州)의 의순관(義順館)에 이르는 역로는 중국 사신의 내왕이 빈번한 길이었으며, 다른 이름인 대동도(大同道)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시의 구조가 선경후정의 방식이라 대동강부터 생양관까지 가는 길의 풍경과 시의 화자의 심정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시의 후반부는 ‘나그네’와 ‘장정(長亭)’과 ‘단정(短亭)’ 등의

⁷ 서거정, 『四佳詩集補遺』 권2 (한국문집총간본). 번역은 고전종합DB를 참조 후 수정하였다. 원운은 <自溟江至生陽館有作> 4수 중 첫 번째 수로 ‘樂浪田多近水, 扶餘山盡連雲. 草木滿舍生意, 是誰分付東君’이다. (『황화집』 권8)

시어로 현재 처한 상황이 정착이 아님을 확인해준다. '나그네'는 명나라 사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1구(句)의 '오래된 역'과 함께 '장정(長亭)'과 '단정(短亭)'은 '역'이라는 나그네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준다. 또한 만남과 이별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며 만남과 이별의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는 대동강과 그 일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권필의 시 <차운하여 상사(上使)가 써서 보여 준 '패강(溟江)에 노닐며'에 사례하다[次韻, 謝上使書示遊溟江之作]>는 1606년에 사신으로 온 주지번의 시에 차운한 것으로, 조선에 도착한 사신에 대한 반가움이 잘 드러난다.

패강의 봄 물결 푸르게 잔잔한데	溟江春水綠潺湲
옥절이 동으로 와 단장한 배에 머무니	玉節東來駐彩舩
저녁 어스름 숲에 푸른 안개 일어나고	薄暮林巒生翠靄
강 가운데 풍악 소리 푸른 하늘에 울리네	中流簫鼓殷青天
존귀한 분 먼 물가까지 와 초승달 맞이하고	尊臨極浦邀新月
붓은 놀란 물결을 따라 폭포처럼 쏟는 듯	筆駕驚濤瀉瀑川
고맙게도 명주를 나누어 나에게 주셨으니	多謝明珠分及我
늙은 용이 잠잘 때 찾아 가져오셨나	探來應值老龍眠 ⁸

시의 전반부에서 대동강의 아름다운 장면과 사신을 맞이하여 흥겨운 모습을 나란히 배치하였다. 사신을 지칭하는 '옥절(玉節)이 동으로 왔다'는 구절을 통해 명 사신이 이제 도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함께 채색한 배 위에서 연회를 베푸는 모습은 전형적인 사신을 접대하는 풍경이다. 막 해가 지는 시간이라 강가는 조용하겠지만 강 한가운데서는 풍악 소리가 높이 울리는 모습을 묘사하여 연회의 성대함을 짐작하게 한다. 시를 주고 받는 것 또한 연회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이다. 그 중 주지번이 쓴 시는 흐르는 물처럼 쏟아지는 폭포처럼 유려하여 이에 감탄하게 된다. 상대의 시를 진귀한 보물이 명주에 비유하면서 시재를 칭찬하였다.

⁸ 권필, 『石洲別集』 권1 (한국문집총간본). 번역은 고전종합DB를 참조 후 수정하였다. 원운은 <渡大同江>으로 원문은 '朝宗江水聽潺湲, 載酒徵歌共扣舩. 絕塞聲華原禹甸, 自東雨露總堯天, 游鱗弄影迎新棹. 振鷺衝煙下遠川, 且止中流簫鼓奏, 恐驚漁父枕蓑眠.'이다. (『황화집』 권39)

반대로 서거정이 지은 <정사의 시 '중과대동강(重過大同江)'에 차운하다[次韻正使重過大同江]>의 두 번째 수에서는 대동강에서 사신들을 전송하며 느끼는 아쉬운 심정을 드러내었다.

하늘의 성관(星官)이 멀리 바닷가에 이르러	天上星官海上過
비 같은 은택을 다시 젖게 되었네	雨分恩澤更滂沱
햇빛은 주렴서 꽃 그림자로 옮겨 가고	日移簾幕花陰轉
봄은 누대를 에워싸 버들 빛이 파랑구나	春擁樓臺柳色多
눈에 가득한 꽃핀 계절 풍경 놀랍건만	滿眼芳菲驚節物
이별에 상심한 뜻 관하에 막혔다네	傷心送別隔關河
술 취하자 옆 사람이 웃거나 말거나	醉中遮莫傍人笑
다시 잔 앞에서 일어나 칼 휘두르며 노래하리	更起樽前擊劍歌 ⁹

사신들이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위로하며 쓴 시이다. 이전에 처음 대동강에 도착하여 연회를 베풀었던 것과는 같은 대동강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1구의 성관(星官)은 별자리를 살피는 관리를 말하는데, 사신을 사성(使星)이라 부르기도 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 성관(星官)은 사신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명나라 사신이 바다를 건너와 조선에 도착한 사실에 감탄하며 '은택(恩澤)'이라고 표현하였다. 시작부터 사신에 대한 칭송이 돋보이는데, 이는 대동강의 수려한 풍경과 함께 어우러진다.

그러나 만남의 기쁨이 큰 만큼 이별의 슬픔도 커지기 마련이다. 봄빛이 완연한 대동강의 풍경에 놀란 것도 잠시일 뿐 곧바로 닥친 이별에 상심만 크다. 오히려 대동강의 아름다운 풍경이 이별을 부각시킬 뿐이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술잔을 기울이다 감정이 깊어져 칼을 휘두르며 회포를 푸는 모습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대동강이라는 공간은 일치하지만 연회의 성격에 따라 정서를 달리한다. 이처럼 주유(舟遊) 문화를 향유하고 차운시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 냈던 대동강 유람은 조선과 명사신 간의 교유의 장이기도 했다. 이승소는 <천사(天使) 급사

⁹ 서거정, 『四佳詩集補遺』 권2 (한국문집총간본). 번역은 고전종합DB를 참조 후 수정하였다. 원운은 '浮碧樓前兩度過, 煌煌龍節照江沱. 日輪穿動浪花碎, 雨脚積來嵐氣多. 怪石槎牙撐砥柱, 靈源迢遞接銀河. 前朝爭戰無窮恨, 都逐春風入棹謠'이다. (<重過大同江>, 『황화집』 권9)

장녕(張寧)의 '대동강' 시에 차운하다[次天使張給事(寧)大同江詩]>에서 사신을 맞이하며 고국을 떠난 심정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이 시의 원운인 장녕(張寧)의 시는 1460년에 처음 사신으로 조선에 왔을 때 쓴 것이다. 이후 1464년에 부사로 온 장녕과 찬서자로 온 이승소는 만나 시를 주고받았다.

멀리 조서 전하려고 오던 길을 재촉하다	遠傳丹詔促行裝
잠시 사신은 대동강 남쪽에서 멈추었네	暫駐星槎溟水陽
강 포구엔 눈 녹아 봄기운이 일어나고	江浦雪消春意動
객사는 날 따뜻해 나그네의 회포 오래가서	郵亭日暖客懷長
한 잔 술로 좋은 계절 보낼 수가 있어도	一杯且可酬佳節
만 리 밖서 고향 생각 쉬이 떠올리겠지	萬里無勞憶古鄉
들판 넓고 하늘 낮아 산은 그림 같아	野闊天低山似畫
아득한 강물 시 지을 뜻 참지 못하게 하네	不禁詩思入蒼茫 ¹⁰

사신은 수행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먼 길을 급하게 왔지만 대동강의 빼어난 풍경은 잠시 쉬어갈 이유를 제공해 준다. 게다가 대동강은 이제 막 눈이 녹는 초봄인데, 앞서 언급 하다가시피 대동강의 초봄은 평양 8경으로 손꼽힐 정도로 절경이다. 조선의 풍경이 익숙하지 않은 사신의 눈에 대동강의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겨울을 물리치는 봄바람의 따뜻한 기운은 오히려 멀리 떠난 객의 향수병을 자극한다. 눈앞에 멋진 풍경과 자신을 향한 극진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사신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쉬이 가시지 않는다. 그리운 심정과 대동강의 크고 넓은 강물은 회포를 풀어내도록 작시(作詩)의 의지를 부추긴다.

이승소는 시를 통해 사신의 심정 대변하였는데, 사행길의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인다. 이러한 높은 이해력과 공감력은 당시 사행을 오느냐 지친 이들에게 큰 위로가

¹⁰ 이승소, 『三灘集』권2(한국문집총간본). 번역은 고전종합DB를 참조 후 수정하였다. 원운은 '平壤孤城發曉裝, 畫船簫鼓麗春陽. 鳥邊雲盡青山出, 渡口潮通碧海長. 共喜皇仁同大地, 不知身世是他鄉. 清尊且莫頻相勸, 四牡東風路渺茫'. (<渡大同江>, 『황화집』권4)

되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곧 이승소의 시는 대동강 유람과 수창을 통해 양측 문인들이 정서적 공감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처럼 대동강에서 유람을 할 때, 그 현장에서 수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대 문인들이 대동강을 유람하며 『황화집』에 수록된 수창하기도 하였다. 보통 중국으로 사행을 떠나는 여정에 대동강에 도착하면 차운시를 지었다. 대표적인 예로 이행이 쓴 <기순(祈順)의 대동강 시에 차운하다[次祈順大同江韻]>가 있다. 이 시는 이행이 질정관으로 중국에 가는 길에 지은 작품이다.

대동강 서쪽 기슭에 오래된 성	大同西畔古重城
그 아래엔 맑은 강 한줄기 비껴 흘러	下有澄江一抹橫
기자의 백성 그 예악 아직 남았고	箕子人民猶禮樂
한산의 시는 재주 명성 홀로 차지하였네	韓山詩律擅才名
다만 청풍 명월 있어 좋은 경치로 답할 뿐	但將風月酬佳景
풍악 울려 먼 길 위로할 필요 없으라	不用笙歌慰遠行
술 취해 봉창에 기대자 호기가 일어나	醉倚篷窓豪氣發
아득한 요해(遼海) 새처럼 가벼이 날고자 하네	茫茫遼海鳥飛輕 ¹¹

기순(祈順)은 1476년 우리나라에 온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잡영(朝鮮雜詠)> 10수를 남겨 조선의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인물이다. 기순의 시를 차운하며, 이행은 반대로 조선의 사신이 되어 타국땅을 밟아야 하는 이의 심정을 읊었다.

시의 전반부는 맑은 강물이 흐르는 대동강의 풍경과 고상한 풍습을 간직하고 있는 평양의 문화를 칭송하고 있다. 4번째 구(句)의 '한산(韓山)'은 목은(牧隱) 이색(李穡)을 가리키는데, 그의 시가 남아 있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색의 시를 높이 평가하며, 뛰어난 작품을 간직하고 있는 대동강의 풍류도 높이고 있다.

이행은 대동강의 아름다움 풍경이 이미 멀리 사행길을 떠나는 자신에게 위로가 되기

¹¹ 이행, <次祈順大同江韻>, 『朝天錄』, 『容齋集』권4(한국문집총간본). 번역은 고전종합DB를 참조 후 수정하였다. 원운은 '泚水蒼茫曉古城, 隔江遙見碧山橫. 安東都護空陳迹, 破虜將軍謾有名. 對景不妨隨處樂, 泛舟聊當賞春行, 留題總是中朝使, 應有邦人試重輕.'이다. (<大同江舟中次陳緝熙內翰一律>, 『황화집』권8)

때문에 애써 연회의 떠들썩한 위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먼 길을 떠나는 이의 막막한 심정보다는 현재의 유람을 즐기는 모습이다. 대동강 풍경을 즐기며 술을 마시다 보니 오히려 사행길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리고 가볍게 날아가서 빨리 도착하고 싶다는 의미를 드러내었다.

이행은 명나라에서 온 문인의 차운시를 통해 먼 길을 떠나야 하다는 유사한 상황과 그로 인한 심정을 시로 표출하였다.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공감으로 현장성을 초월한 정서적 교감을 보여준다. 이처럼 명나라 사신과 조선 원접사의 대동강 유람과 차운시는 당대 문인들 간의 정서적 교류를 이끌어내었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동강 유람을 하며 조선 문인들은 배를 타고 대동강 곳곳에 자리 잡은 명승지들을 둘러보고, 강 한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풍악을 울리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풍류의 즐거움을 즐겼다. 배 위에서 연회를 열며 유람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유(舟遊)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대동강 유람은 풍요롭고 풍류가 있는 도시라는 평양의 도시적 이미지와 맞물려 다른 곳보다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배 위에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고, 화려한 유람을 즐기면서 문인들은 시를 통해 유람에 대한 자족과 호방한 풍류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또한 함께 유람한 이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흥취를 공유하였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는 경우, 압록강에서 맞이해 도성까지 이르는 여로에서 풍경이 뛰어나거나 유적지가 있는 곳에 머물며 연회를 베풀었다. 압록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풍경이 아름다웠던 대동강은 연회가 열리는 주요 장소 중 하나였다. 유람을 하며 명나라의 사신과 조선의 원접사는 서로 시를 주고받았는데, 대동강 주변 풍경에 대한 감탄을 전제로 만남의 반가움, 이별의 아쉬움, 상대의 시문을 칭찬하는 등 다양한 정서를 엿볼 수 있다. 시를 수창하며 명과 조선 사신들은 정서적·문화적 교감을 하였다. 이때 대동강은 명 문인과 조선 문인과의 문화 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다.